http://doi.org/10.36429/CRRC.37.2

특집논문2

독일 개신교와 사회복지: 19세기 중반 '디아코니'의 역사적 함의를 중심으로*

김 태 연

Ⅰ. 들어가며

독일 정부는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 하나로 '민간복지요양연방업무공동체(BAEFG: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1924년 결성)에 재정을 투입한다. BAEFG에는 총 6개의 회원단체가 속해있으며, 그 중 하나가 '독일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이다.[1] 현재 약 천 만 명 정도가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의 교육, 돌봄, 자문, 요양, 간호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2] 독일 체류 기간 동안 필자는 독일 디아코니 산하 각 지역의 디아코니 사업단(Diakonisches Werk)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을 상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3] 교육시설,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실업자와 이주노동자 및 난민 지원센터, 노숙자 쉼터, 노인세대와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가 함께 하는 디아코니 공동주택 등을 견학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

* 2019년 11월 심포지엄 때 논평을 해주신 평택사회복지재단 서보람 박사님, 일본 자료를 알려주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서동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꼼꼼히 심사해주시고 조언 주신 모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디아코니 사업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독일 가톨릭-카리타스연합회(Deutscher Caritasverband), 유대인 중앙복지회(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독일 적십자사(Deutsches Rotes Kreuz), 독일 복지단체연합회(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노동자복지회(Arbeiterwohlfahrt). https://www.bagfw.de/ueber-uns/mitgliedsverbaende (2019년 11월 10일 확인)

2) 각 영역 시설의 수용 가능 현황은 디아코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디아코니 사업단의 직원은 599,282명이며, 자원봉사자로는 700,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https://www.diakonie.de/ (2019년 11월 10일 확인)

3) 본고에서 사용하는 '디아코니(Diakonie)'라는 용어는 '디아코니아'의 독일식 표현이다. 편의를 위해 일단 '디아코니'로 통일한다. 개념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다루고 있다.

설운영방식에 당시 깊은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 몇몇 대학에는 디아코니학과(Diakoniewissenschaft)가 설치되어 독일 개신교의 복지사업을 위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인력을 배출하는 점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교인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섬김과 봉사의 그리스도교 정신을 회복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독일 디아코니의 사회복지활동은 한국 개신교 신학계에서 개신교 사회복지 사업의 바람직한 모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다.[4)]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는 19세기 중반 창립 이래 독일 디아코니의 개신교 사회복지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복지' 개념이 19세기에도 과거에도 지금과 동일한 함의로 쓰였는지에 대해 의문시 해본다면, 독일의 개신교 복지사업으로서의 디아코니 사업이 19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반인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는 이상화된 이해방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절을 고려하는 것은 독일 디아코니사에 대해 분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일환이다. 타국의 역사적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참조하면서 우리는 자국의 역사를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독일 디아코니사에 대한 분화된 시각의 비판적 검토가 아닌 단선적 이해를 통해서는 한국 개신교와 사회복지사업활동에 관련한 성찰을 진전시키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

4) 아무래도 실천의 장과 연결되어있는 만큼 한국 개신교 신학계에서 '디아코니', '디아코니아'에 대한 연구는 특히 기독교 윤리, 실천신학 분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을 들 수 있다.: 강원돈,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복지사상〉, 《기독교 사회윤리》 제14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7, 7–41쪽.; 홍주민, 〈독일의 디아코니아와 요한 힌리히 비헤른〉, 《신학연구》 제47집, 한신학술원 신학연구소, 2005, 283–316쪽.; 홍주민,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실천과 신학화 과정에 관한 연구: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신학화 과정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18집, 한국실천신학회, 2009, 215–252쪽.; 홍주민, 〈16세기 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마틴 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집, 한독사회과학회, 2007, 221–253쪽.; 홍주민, 〈복지국가 스웨덴과 개신교 디아코니아 관련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32집, 한국실천신학회, 2012, 32, 659–684쪽.; 허우정, 〈하인츠 바그너 (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국교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한국실천신학회, 2008, 87–113쪽.; 최무열,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대사회적 신뢰성 회복방안으로서의 디아코니아 활용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제47집, 한국실천신학회, 2015, 519–549쪽.

독일에서도 현대적 복지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19세기 말에야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경우 '복지' 개념은 새롭게 유입되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복지정책은 해방이후 독립국가로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야 시작되었다.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 관련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연속적인 모델이기보다는 역시 그 내부에도 단절과 재해석의 과정이 내재해있으며 그 변화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 개신교와 디아코니의 역사에 대해 세분화된 관점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서 개신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 개선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성찰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19세기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단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한 힌리히 비헤른(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과 최근에 들어서 디아코니와 관련하여 조명을 받는 빌헬름 뢰헤(Wilhelm Löhe, 1808~1872)의 디아코니 이해방식을 살펴본다. 두 인물은 그 신학적 입장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들의 디아코니 이해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구제사업으로서의 디아코니가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지, 현재적 의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접하는 독일 개신교와 디아코니 사업의 관계는 본격적으로는 20세기 중반 이후 독일 개신교가 디아코니라는 모토 하에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디아코니사의 연속성을 당연한 전제로 삼기보다는 그 단절을 인식하며 읽어낼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 2장은 본격적 논의에 들어서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획되었다. 본론과는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복지' 개념의 유래와 그 사용된 맥락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먼저 '복지' 개념이 동아시아에 어

떻게 유입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짚어본다.[5] 이후 현재 통용되는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이해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후, 독일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정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살핀다. 개념정리라는 선행 작업을 통해 19세기의 텍스트를 접할 때, 디아코니 사업을 곧 현대의 복지사업과 동일시하는 시각을 지양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독일 디아코니 사업 출현에 대한 개신교 교회사적 이해방식을 다룬다. 이 장은 '디아코니' 개념을 비롯하여 개신교 디아코니의 출현 배경에 대한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유럽의 종교전쟁 종식 이후 17세기 이래로 평신도 차원에서의 경건주의적인 신앙이 확산되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과학의 도전,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급변속에서 신앙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음을 살펴본다. 평신도 차원에서 이미 소외계층을 돕고 이들을 다시 신앙적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헤른이 연방교회적 차원의 사회를 향한 협력을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켜 실행에 옮겨진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비헤른과 뢰헤가 당시 어떠한 종교적 논리와 해석으로 사회문제에 반응하며 내방선교와 디아코니를 이해했는지 보고, 그것의 현대적 복지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본다.[6] 이후 독일 개신교가 현대적 복지개념과 상응하는 디아코니 사회복지사업으로 나아가는 변화상황에 대해 간단히 짚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들을 정리하며 한국 개신교와 복지의 관계에 좀 더 심화된 논의의 가능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

5) 일단 일본에 유입된 사례까지만 살펴본다.

6) 내방선교(innere Mission)는 교회와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진 자국내 인민을 삶과 신앙의 차원에서 재그리스도교화시키는 활동을 뜻한다. 외방선교(äußere Mission)는 해외 선교를 뜻한다. 비헤른의 공로는 내방선교 개념을 자국을 향한 교회의 구제사업으로 연결시켜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II. '복지' 개념의 유래와 그 현대적 이해방식

"복지"를 '안녕의 상태'로 이해해본다면, 복지란 사실상 인류가 늘 그려왔던 이상적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는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통해 조직되어왔으며, 전염병 및 빈곤문제 발생 시에 국가적 차원의 구호 및 구제사업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다. 종교도 물론 종교 의례와 이상향 제시를 통해 정신적인 복지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주장 가능하다.[7] 만약 이런 시각을 가진다면 '복지' 개념을 저 먼 고대는 물론 그 이상으로 무한 확장하여 적용 가능하다. '안녕한 상태', 안락과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도 종교전통마다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금욕과 은거생활을 통해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전통에서는 그 방식을 진정한 복지 추구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복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단은 1848년을 창립기점으로 삼고 있다.[8] 1848년 제1차 개신교 교회의 날 비헤른의 연설을 통해 디아코니에 대한 개신교의 본격적 각성과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848년부터 독일 개신교의 사회복지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국내 연구에서도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신교의 사회복지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기존 관점을 수용한다. 물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종교개혁까지 그 시점이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복지'의 의미가 19세기 중반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가? 우리에게 '종교' 개념이 19세기에 새롭게 유입되었던 것처럼 '복지'라는 표현 또한 우리에게 그런 것 아닌지, 그리고 19세기 독일의 개신교의

7) Gerhard Wegner, "Religion und Wohlfahrt," Detlef Pollack etc. (ed.), *Handbuch Religionssoziologie*, Wiesbaden: Springer VS, 2018.
8) 1848년은 내방선교 중앙위원회 결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서의 상징적인 해이다. 정식 협회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게 된 것은 정확히 1849년이다.

경우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개신교가 행한 구제사업이 이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복지' 개념에 상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1. 동아시아에서의 '복지' 개념의 유래

'복지'란 개념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일까? 만약 이것이 새롭게 유입된 것이라면 과연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일본에서 최초로 '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은 1875년 출판된 《致富新論譯解》이다.[9] 이 책은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로빈스 브라운(Samuel Robbins Brown, 鮑留雲, 1810~1880)이 홍콩에서 출판한 《致富新書》(1871)의 일역본이다.[10] 정확히는 《致富新書》를 그대로 번역 했다기 보다는 그것을 저본으로 하여 일본어로 편집 저술된 책이 《致富新論譯解》이다.

브라운이 《致富新書》의 원본으로 삼은 것은 콜롬비아 대학, 도덕철학-정치경제학(political-economy) 교수이자 목사였던 존 맥비커(John McVicker)의 *Outlines of Politicial Economy*(1825)로 추측된다.[11] 하지만 《致富新書》에는 '복지'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 일본어 역서인 《致富新論譯解》에만 등장하며, '복지'란 단어는 과거 어느 한문서적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12] 그렇다면 동아시아 근대시기에 '복지'란 개념은 서구의 정치경제학을 수용하면서 국가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한 차원, 즉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welfare'는 18세기 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등장하고 있

9) ブラオン, 《致富新論譯解》, 中島雄 · 讃井逸三 옮김, 松栢堂(家藏), 1875.
10) 鮑留雲, 《致富新書》, 香港: 飛鵝山書院, 1847.
11) John McVicker, *Outlines of Political Economy*, Broadway: Wilder & Campbell, 1825.; 《致富新書》의 저본이 맥비커의 책으로 추정된 것은 영국 선교사 에드킨스(Joseph Edkins, 1823~1905)의 메모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New Work on Political Economy, by a Chinese student, educated in English at the Morrison Institution, Hongkong. It is a translation of a small work on Political Economy by Dr. Vickars, USA. | vol., Hong Kong, 1847.", Federica Casalin, "Some Preliminary Remarks On The ZhifuXinshu," 〈或問〉 11, pp. 85-99, 王斌, 〈明治初期における経濟學翻譯の一齣: 漢譯書『致富新書』をめぐって〉, 《翻譯研究への招待》, p. 15, 2016, 36쪽에서 재인용.
12) 王斌, 위의 글, 43-44쪽.

으며 그 쓰임새는 늘 사회의 안정과 공공복지와 연관되어 있다.[13] 동일 어족에 속하며 영단어와 유사한 독일어 'Wohlfahrt'의 경우 이미 16세기부터 쓰였으며 기본적으로는 잘(gut), 안녕히 지낸다는 의미이다.[14] 서구 고전경제학의 등장부터 근대 시기의 경제학에서 '복지' 개념에 변화가 있었겠지만, 일단 '안녕한 상태'라는 가장 기본적 의미는 지금과는 아주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국가 주도의 공공 사회복지로서, 단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만을 향한 구휼정책이 아닌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및 사회의 복지개념은 서구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5]

2.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현재의 이해방식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소위 사회복지의 선진국이라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북유럽이 떠

---

13) "public welfare", "peace and welfare of civil society", "welfare of the society"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초판 1775년.: 원문출처 http://www.gutenberg.org/files/3300/3300-h/3300-h.htm (2019년 10월 25일 확인).

14) Friedrich Kluge,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9(개정 22판, 초판 1883), p. 797.

15) 《사회복지의 역사》에서는 "자발적 원조체계와 공공사회복지의 대두"라는 표제 하에 사회복지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때 주요하게 참조되는 것은 서양 국가의 사회복지역사서술이다. 라틴어 카리타스(caritas)나 카루스(carus)에서 유래한 자선(charity), 고대 그리스어 합성어인 박애(philanthropy)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박애는 시민권자의 기부행위와 결부하며, 자선의 경우 유대교에서 고아와 과부, 빈민, 나그네를 향한 구제,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기독교인의 자선, 더 나아가 불교에서의 자비와 보시가 거론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공공복지에 대해서는 고대국가 이집트와 중국, 로마– 그리고 서양 중세에서 산업화 전까지 사회불안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구호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전문적 사회복지의 맹아가 시작되는 때는 영국의 중상주의(Mercantilism) 정책이 활발했던 16~18세기의 구빈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김정기 · 최원규 · 진재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 2010에서 제 2부 3–5장, 제 3부 제 6장 참조.; 같은 책, 167쪽, 특히 제 5부 참조.: 이 책에서 저자들은 크리스토퍼 피어슨(Christopher Pierson)이 복지국가의 출발을 "사회보험의 최초도입, 시민권의 신장과 공공복지에 의한 빈곤퇴치, GNP 3% 이상의 사회적 지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1880~1914년의 기간을 복지국가의 탄생기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하게 참조하고 있다. 한국관련 사회복지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 책 마지막 5부에서 서구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제 3세계 국가와 다루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혼란 및 서구 선교사들의 문명화 선교의 일환으로서의 병원과 학교설립과 같은 사회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후 전통사회에서 불교 및 유교의 자선과 박애사업, 상부상조 조직으로서의 향약과 두레 등을 언급하고 이후 한반도 고대사회의 구휼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 활성을 위하여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는 곳은 1947년 이화여대, 1953년 중앙신학대, 1958년 서울대 대학원 등이었다. 사회복지관련 법률이 본격적으로 입법화한 시기는 군사정권 시기에 이르러서였다. 1961년–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원호법, 1963년–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이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사실 60년대는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여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진전된 사회보험제도가 마련된다.

오른다. 모든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고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정한 직장, 평생 저축을 해도 마련하기 힘든 보금자리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으로의 이민하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선망한다는 기사를 우리는 자주 접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라는 말에는 개개인이 갑작스레 나락에 떨어져 인간다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그리고 설사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사회적인 방어막이 존재하여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

우리는 노인복지, 청년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고용복지 등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복지 사업을 한 마디로 총칭하여 '사회복지'라 일컫는다. 사회복지학 관련 입문서들 1장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반드시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복지'를 한 자씩 풀이하면서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그와 동일하게 영어의 welfare를 풀어내면서 우리가 쓰는 복지라는 개념과 영어의 welfare의 함의는 동일하다는 내용이 서술된다. 사회복지(社會福祉)라는 한자어와 영어의 'social welfare'의 뜻은 모두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임이 제시된다.[16)]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쓰는 복지의 의미는 정부가 국가 살림을 경영할 때 국민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사항, 더 나아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까지 보장한다는 정책적 의미가 강하다. 현재 일반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복지',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에서 논의하는 복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추구되는 국가적 이상향을 우리는 '복지국가'라 부르고 있다.

---

16)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7, 25–26쪽.

3. 유럽 근대 시기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독일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공공복지정책이 시작된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 총리는 단결하여 국가에 대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 세력을 회유하여 민주주의 세력에 대항하려는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사회개혁정책에는 인민을 국가에 안정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관료계급과 노동하는 인민계급간의 일종의 물물교환과 같은 측면이 내포되어 있었다. 일차적으로 사회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공공복지 정책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노동자 세력을 길들이고 회유하는 전략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독일은 영국보다 훨씬 뒤늦게 산업화 되었으나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했다. 비스마르크 총리의 지도하에 1883년부터 의료보험(1883년), 상해보험(1884년), 실업자보험과 노인연금보험(1889년)이 도입되었다. 독일의 공공보험 시행은 유럽대륙에서 모범사례가 되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이 복지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7]

'복지'가 정치–경제적인 이데올로기적 계산 하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차원의 '복지' 증진, '복지국가' 정책 관련 사안을 국민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차원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노동자운동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자본가들의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치전략으로서 복지정책이 추진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

17)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차원에 맡겨야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1911년에 독일의 사회복지모델을 수용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복지시스템을 선호하였다.: Peter Sedgwick, "Wohlfahrtsstaat," *TRE Bd.36*, pp. 272–273.

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된 공공보험제도는 그 수급조건이 무척 까다롭고 노동자의 급여나 삶의 수준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권확보와 정치세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18]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권력 네트워크는 이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종교와 복지의 문제를 생각 할 때에도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복지라는 행위를 둘러싼 종교계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길항관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지' 개념은 1880년대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루는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나 사업의 시기는 1880년대 이전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살펴볼 시기의 디아코니 개념에는 복지에 대한 현대적 이해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

III. 디아코니 개념 및 디아코니 사업 출현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디아코니아, 디아코니

'디아코니'는 '섬김', '봉사'란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에서 유래한다.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을 가리켰다. 이 용어는 신약성서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

18) 김정기 · 최원규 · 진재문, 《사회복지의 역사》, 178-179쪽.

고, 서신서에는 사도들 혹은 복음 전파에 조력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디아코노스'(집사)라는 용어가 전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19]

일반적으로 집사직분 탄생에 대한 역사적-신학적 근거로서 사도행전 6장 1~6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제시된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매일 함께 하는 공동식사에서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열 두 사도들은 분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일곱 일꾼을 공동체 가운데서 뽑게 하였다.[20] 사도행전 해당 본문에는 사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의 해석에 힘입어 그 이후 전승에서는 이 일곱 사람의 직분을 집사와 동일시하게 된다.[21]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식사는 복음 선포와 관련하여 1) 초대교회의 주요예전이었다. '디아코니아', 즉 섬김은 2) 그리스도론(Christologie) 및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교회론(Ekklesiologie)과 긴밀하게 연관된다.[22]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죽기까지 낮아짐이 디아코니아의 모본이 된다. '디아코니아'는 특히 3) 누가복음의 전통에서 강조되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전통에 서 있다.[23]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선행과 자선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 복음서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이래로 개

---

19)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 집사란 교회 정회원인 평신도의 직분의 하나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집사(diakon)는 본래 초대교회의 성직자 체제에서 주교를 보조하고 주교가 부재시 예배와 성만찬을 대신 집전하는 대리 직분이었다. 현재 독일 개신교에서도 집사는 각 교회에서 담당목사가 병가나 휴가로 부재 시에 목사 대리로서 예배를 집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준성직자이다.

20) "1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3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6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행전》, 6:1-6 (새번역).

21) 사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들 일곱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돌아볼 때, 헬레니즘계 유교 디아스포라 회당에서의 장로들로 조직된 칠인(七人)-지도위원회(Siebener-Leitungsgremium),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도시를 관리하던 회당 지도자(parnasim)의 칠인 위원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Paul Philippi, "Diakonie I,"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ed.), *TRE Bd. XIII*, p. 621.

22) *Ibid*., p. 622.

23) Friedrich Wilhelm Horn, "Diakonische Leitlinien Jesu," Gerhard K. Sch fer, Theodor Strohm (ed.), *Diakonie-biblische Grundlagen und Orientieurngen*, 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sanstalt, 1998, pp. 109-111.

신교에서 신앙의 갱신을 위해 지금까지도 '초대교회로!'라는 모토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관한 기억과 기록이 강조된다. 따라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개신교 내부의 개혁과 신앙갱신을 위해, 그리고 교회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신앙적 실천으로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강조될 때에 소환되어 시대에 맞게 신학적으로 재해석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신앙적 배경: 경건주의와 각성운동

1) 경건주의

30년 전쟁 종식 후, 17세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종교적 경건성이 급속히 발전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교회와 성직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교와 교회를 어떻게 프락시스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본격화된 소위 경건주의(Pietismus)로 일컬어지는 이 흐름은 신앙의 경건함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직접 살아내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을 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빈곤층을 향한 개신교 구제사업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독일 근대 개신교사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경건과 갱신을 위해 구제사업과 교육, 선교에 집중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음의 세 사람이 늘 등장한다. 첫 번째는 루터교 경건주의의 설립자로서 기억되는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 두 번째는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세 번째는 모라비안 형제단(Herrnhuter Br dergemeine)을 이끌며 해외 선교에도 노력을 기울인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 백작이다. 이들 세 인물은 교리와 교권 중심

적인 루터교 정통주의에 대한 비판 및 반성 속에서 신앙심의 함양과 경건의 실천을 강조하며, 매우 조직적으로 실용적 교육을 통한 직업인 양성사업, 자선과 구제사업, 외방선교에 힘썼다. 이들은 개개인의 신앙의 갱신을 통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과 사회사업을 수행해 나아갔다.

19세기의 개신교 복지사업의 맥락과 그 전개양상은 상당히 다르지만 이러한 신앙적 태도에 기반한 실천을 19세기와 20세기의 각성운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7세기의 사회를 향한 사역 관련 경건 서적과 그 구체적인 성과들이 가시적이었기에 경건주의의 일직선적 계승으로서 각성운동을 이해하는 독일 개신교 역사 서술 또한 납득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각성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성직자들 및 신자들은 지난 경건주의 시대의 신앙서적을 탐독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과 실천을 모범으로 삼았다.

2) 각성운동

19세기 초반 이래로 독일 개신교계에는 신앙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교회사적으로 이를 '각성운동(Erweckungsbewegung)'으로 명명한다.[24] '각성(Erweckung)'이란 개념은 프랑케를 중심으로 일구어진 경건주의 사역의 중심지 할레(Halle)에서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앙 용어이다. 인간이 종교적으로 게으르고 죄 가운데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 그 종교적 감격을 회복하도록 반복적으로 격려 받는다는 뜻을 내포한다. 각성하게 된 신자는 마침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힘을 회복하게 된다.[25] 각성운동은 우리에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란 사건으로 친숙한 용어인 영미권의 '부흥운동(Revival)'과 밀

24) 이러한 각성운동은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에 이르는 유럽의 대체적인경향이었다. 18세기의 영국과 미국의 신앙각성운동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Johannes Wallmann, *Kirchengeschichte Deutschlands seit der Reformation*,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2000;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 교회사》, 오영옥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6, 236쪽.

25) 시간이 지나면서 각성이란 말은 '귀의', '개종'이란 뜻의 Bekehrung 대신에 더 자주 등장하게 된다.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건주의는 계시신학에 얽매여 신학적으로 완고하게 머무른 정통주의(Orthodoxie)에 대한 비판적 운동이었다. 각성운동은 경건주의적 신앙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 시대의 종교적 맥락은 전혀 달랐다. 각성운동의 경우, 신앙을 경멸하고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시대정신에 대한 대항 및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종교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실천적 운동이었다.[26] 일반적으로 독일 각성운동은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830년대에 최정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각성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어 그 결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도 드러났다.[27]

19세기는 '교파주의 시대(Zeitalter der Konfessionalisierung)'로 일컬어진다. 개혁교회에 속한 프로이센 군주가 초교파적으로 개신교를 연합시켜 국가통치에 충실히 기여하는 국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루터교내 교파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심하게 일어난 때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유럽사적으로, 특히 독일사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급변의 시기였다. 주요한 사건으로는 1806년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1803년부터 1815년까지의 나폴레옹 전쟁, 1813~1815년까지 나폴레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전쟁이 일어났다. 흉년과 질병의 문제, 도시화와 산업화 문제가 발생하며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1848년은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한 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다.

3. 개신교 구제사업의 확산

---

26) Gustav Adolf Benrath, "Erweckung/Erweckungsbewegungen I,"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ed.), *TRE Bd. X*,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2, pp. 205–209.
27) Johannes Wallmann, *op. cit.*, pp. 238–239.

각성운동이라는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 일반신자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제활동은 산발적이었으나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르주아와 귀족계급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산업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빈민 및 공장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제사업에 나서는 이들이 생겼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 시의원의 딸이었던 아말리에 지베킹(Amalie Sieveking, 1794~1859)은 13명의 부르주아 여성들을 모아 '빈민과 병자 구제를 위한 여성협회(Weiblicher Verein für Armen-und Krankenpflege)'(1832년)를 최초로 설립했다. 이 협회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회복되도록 돕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자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독일 북부 슐레지엔(Schlesien), 포머른(Pommern)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은 코트비츠(Hans Ernst von Kottwitz, 1757~1843) 남작이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법률가로서도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회심을 경험 한 이후 각성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주변의 가난한 방직공들 위해 기부했으며 '실업자들을 위한 자발적 취업시설(Freiwillige Beschäftigungsanstalt für Arbeitslose)'을 베를린에 설립하였다.[28]

이러한 구제활동은 제도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빈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방해요인이라고 확신했다. 다시 말해 공동의 목표는 빈곤퇴치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앙의 방해요인으로서의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탈그리스도교화된 빈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었다. 신자들이 주도하는 신앙적 갱신을 위한 사회구제사업이 독일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뷔템베르크 주의 경우 1845년, 사회적 약자들을

28) 코트비츠는 포메른 지역의 토지 귀족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주인과 하인이라는 신분관계를 철폐하여 형제애를 실천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또한 젊은 시절 이 지역에서 신앙 각성운동을 경험했다. *Ibid.*, pp. 241-242.

위한 보호시설이 22개에 이르렀다.[29]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848년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활약에 힘입어 개신교의 사회구제사업의 분수령이 마련된다. 독일 개신교사에서 '내방선교 중앙위원회(Centralausschusses für die Innere Mission)'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내방선교 중앙위원회는 제도교회의 하부조직으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내방선교를 위한 협회로 운영되었으며, 독일 각 지역 곳곳에 내방선교 기관을 설립하여 그 영향력을 확산해 갔다.[30]

IV. 비헤른과 뢰헤의 디아코니 이해

비헤른은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의 공식적 출발점을 마련한 선구자이자 디아코니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 인물이다. 그는 신학자이자 교육가로서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오갈 데 없이 방임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구제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비헤른의 기여를 통해 내방선교 사업단이 공식 출범되고 그 실천으로서 디아코니 사역이 확산되게 되었다. 한국 개신교 신학계에서 비헤른에 대한 소개와 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헤른의 이력은 간단히 언급하고 그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사회를 향한 디아코니 사업에 대에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주요하게 살핀다. 비헤른은 현재 독일 디아코니의 자유주의

29) Katharina Kunter, "Diakonie(Welfare and Social Work) and Protestantism in Germany, c. 1780–1920," Leen van Molle (ed.), *Charity and Social Welfare: The Dynamics of Religious Reform in Northern Europe*, Leuven University Press, 2007, p. 223.

30) 내방선교 중앙위원회는 1849년 1월 9일에 민법상의 협회로 공식 탄생하였다. 1918년까지 교회법적, 국가교회법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지 않았다. 각 지역의 내방선교 기관들을 설립하는 데는 주도적이었으나, 그 기관들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는 느슨한 관계 속에서 매개적 역할을 담당했기에 하부기관들은 자율적으로 활동 가능했다. 강원돈,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한신대학교출판부, 2016, 43쪽.

신학적이며 개방적인 신앙적 색채와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으나, 뢰헤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있었다. 이에 비헤른의 경우보다는 좀 더 상세히 뢰헤에 대한 소개를 한 후 그의 디아코니 이해와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헤른의 디아코니 이해

비헤른의 경우, 함부르크 각성운동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구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앞서 언급된 지베킹은 비헤른이 괴팅엔과 베를린에서 신학생이던 시기(1828~1831)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학생 시절, 비헤른은 할레의 프랑케 재단을 방문하였으며 코트비츠와도 친분이 깊었다. 함부르크로 돌아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서교사로 활동하던 1833년, 그는 '도덕적으로 방임된 생도들을 위한 구조시설: 라우에의 집(Rettungsanstalt für sittlich verwahrloste Zöglinge: Das Rauhe Haus)'을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라우에의 집 산하 인쇄소와 출판사를 경영하며 대중을 향한 신앙적 글들을 발표했다. 1844년부터는《라우헤 집 소식지(*Fliegende Blüttern aus dem Rauhen Hause*)》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개신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고백"을 감당해야 한다고 독려하며 사회사업과 내방선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수의 글을 실었다.[31]

앞서 언급했듯이 비헤른의 내방선교사역에 대한 구상이 동력을 얻어 구체적인 실행 기구까지 설립되게 된 때는 1848년 연방교회들(Landeskirchen)이 최초로 함께 모인 제 1회 비텐베르크 개신교 교회의 날(Wittenberger Kirchentag, 1848년 9월 21일~23일)이었다. 9월 22일, 그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회적 사명에 관하여 한 시간이 넘는 즉흥 연설을 했는데, 내방선교와 사회사업에 대한 교회의 책임

31) Wallmann, *op. cit.*, pp. 280.

을 특히 강조했다.[32]

연설에서 비헤른은 당대를 세계사의 전환점으로 진단하며, 이 시점을 곧 그리스도교의 전환점으로 삼아 인민을 향해 새로운 태도로 나아가야함을 역설했다. 시대적 전환점에서 드러난 위태로운 징후로서 그는 2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과 3월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을 언급한다. 그는 혁명으로 인해 고통과 곤경의 상황이 벌어졌으나 개신교회야말로 민족에 신앙과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종국에는 민족교회로서 발돋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이러한 생각, 이러한 바람과 희망이 생동감 있게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민족의 구원을 확실히 마음에 품고 있던 소모임(협회)들에 오랫동안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 희망을 실현시키는데 방해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은 극복할 수 없으리만큼 다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우리 서쪽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끔찍한 시련과 함께, 3월에는 우리 조국(Vaterland)에도 불운한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가슴 깊이 피를 흘렸는데, 수치와 곤궁, 환히 드러난 죄의 권능으로 아파하며 피 흘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 교회의 신앙이 깊어지고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이 갱신되는 그 부르심이, 어느 날 생동하는 희망 가운데 우리가 오직 환희로 맞이할 임박한 그 날의 시작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 민족이 새로운 방식과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갱신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를 받음으로써, 우리 개신교회는 민족교회(Volkskirche)가 되어야 하고 [또] 민족교회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33]

---

32) 독일 개신교 교회의 날은 현재까지도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33) Johann Hinrich Wichern, "Wicherns Erkärung vom Donnerstag, den 21. September 1848," Wolfgang Masser; Gerhard K. Schä

비헤른의 자유주의-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에 대한 반응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도 상통한다. 같은 해 2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 – 그 이름은 지금 메두사의 머리와 같아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시민사회의 혈관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그 실행된 공산주의는 … 가난한 이들의 부에 대해 억눌려진 분노가 분출된 것으로서 충분히 가지지 못한 자들과 다소 궁핍한 이들이 개인의 어떠한 잉여형태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양하고 개인적인 전 재산, 명예, 교육, 향락의 균등 및 모든 것에 대해 평등을 요구합니다. … 그것은 의미 없는 요구로서, 스스로 한 때는 실현된 것으로 생각될지라도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이 늘 다시 새롭게 전복되는 것, 불평등은 항상 되풀이될 것이고, 불평등은 완전한 파괴로 끝나는 혁명과 함께 공산주의 실현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34]

비헤른은 허황된 평등의 꿈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인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독일 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공산주의에 현혹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주체로서 개신교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확신했다. 그는 창조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

fer (ed.), Geschichte der Diakonie in Quellen: Vom Anfang des 19. *Jahrhunderts bis zur Gegenwa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pp. 115–116.

34) Johann Hinrich Wichern, "Kommunismus und die Hilfe gegen ihn (1848)," Peter Meinhold (ed.), *Johann Hinrich Wichern: Sämtliche Werke Band I*, Berlin und Hamburg: Lutherisches Verlagshaus, 1962, p. 133.; Jürgen Boeckh, Ernst-Ulrich Huster, Benjamin Benz,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Eine systematische Einführung*, Wiesbaden: VS Verlag, 2011, p. 40에 소개된 비헤른의 글을 참고함.

건을 지나 마지막 종말론으로 나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구원사 대 세상적인 세계사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해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투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데, 이때가 "구원사에서 일어나는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인 신적 시간인 카이로스인 것이다.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주가 되어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나아가야한다.[35]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 그가 각성시키고자 한 것은 민족의 육체(Volkskörper)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야한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주요 관심사는 사회 전체를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었다.[36] 그 프로그램이 바로 재그리스도교화를 위한 '내방선교'였으며, 그 주요한 실천이란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섬김의 사역이었다.

> 나의 친구들이여! 개신교회 전체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방선교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방선교는 그 활동을 총괄하여 요약하는 모토를 가지는데, 그 모토는 나에게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사랑은 내방선교의 위대한 도구여야 합니다. 내방선교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지고지순하고 가장 교회적인 행위는 구출하는 사랑입니다. 내방선교라는 말을 이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교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날이 동터올 것입니다.[37]

---

35) 강원돈,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한신대학교출판부, 2016, 34쪽.

36) Hans–Martin Gutmann, "Der Schatten der Liebe: 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 Johann Anselm Steiger(ed.), *500 Jahre Theologie in Hamburg: Hamburg als Zentrum christlicher Theologie und Kultur zwischen Tradition und Zukunf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p. 155.

37) Johann Hinrich Wichern, "Wichern auf dem Wittenberger Kirchentag 1848 (Rede)," *Sämtliche Werke I*, P. Meinhold (ed.), Berlin, Hamburg: Luth. Verl.–Haus, 1962, p. 165, 강원돈, 위의 책, 36쪽에서 번역문을 약간 다듬어서 재인용.

비헤른의 '내방선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중앙위원회의 요청으로 그가 정리한《내방선교에 관한 백서(*Denkschrift über Innere Mission*)》(1849년)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사회에 만연한 빈곤상태(Pauperismus)의 해결뿐 아니라, 내적인 빈곤상태 – 인민들 가운데 드러나는 "대규모의 도덕적 그리스도교적 퇴락 현상"을 경고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물질적 빈곤이 내적인 빈곤으로 바로 비약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적 부의 축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대조적으로 가난과 곤경의 상황이 펼쳐져 있다. 부의 편중에 대한 비판적 언급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논의를 귀족과 부르주아를 향한 각성의 요구로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다. 그는 영적으로 빈곤한, "정신적 프롤레타리아"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38] 이는 빈곤퇴치를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이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육적 빈곤 해결을 위한 도움은 동시에 영적인 돌봄이기도 했다.

비헤른은 또한 내방선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내방선교의 관점에서 가족–국가–교회는 선천적이며 핵심적인 세 직분으로서 서로 영향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각 직분은 자기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목표에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내방선교는 정치적인 관점의 대변자가 되지 않지만 내방선교가 확고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정치가 부합한다면 그에 대한 적극과 참여가 가능하다.[39]

여기에서 우리는 비헤른의 내방선교 비전에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여파로 비롯된 사람들의 탈교회화와 빈곤의 문제를 돌파해나갈 수 있는 교회 개혁적

38) Johann Hinrich Wichern, "Denkschrift über Innere Mission," Hans–Walter Krumwieder, Martin Greschat (ed.), *Kirchen- 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 Bd. IV/1, Neuz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pp. 236–239.

39) 여기에서 로마서 13장 1–2절이 인용된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새번역), *Ibid.*, pp. 238–239.

구상과 그 실천의 주요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비전에는 국가와 지방 영주에 종속된 관헌기관으로 전락하여 인민의 복음화에 무력한 제도교회를 넘어서, 초교파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스도교적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40] 모든 인민이 복음으로 교화된 국가건설을 위한 내방선교는 디아코니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었으며, 디아코니 사업은 내방선교를 위한 실천행위였다.

2. 빌헬름 뢰헤와 디아코니 이해

1) 빌헬름 뢰헤

빌헬름 뢰헤는 독일 남부 작은 시골마을, 노이엔데텔스아우(Neuendettelsau)에서 단독목회를 하며 구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인물이다.[41] 전투적 교파주의자였던 그는 제도교회로부터 요주의 인물이었던 바,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길 수 없었으며 그 곳이 최초이자 마지막 임지가 되었다. 비헤른과 뢰헤 모두 루터교에서 성공적 디아코니 사역을 이룬 인물들로서 평가된다. 그러나 비헤른이 대도시 출신으로서 프로이센의 화려한 문화 중심지 베를린에서 활동하였으며 초교파적인 협력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뢰헤는 세속권력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목회지역인 작은 읍에서 평생을 보냈다. 특히 그는 루터교의 교파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에 매진했다. 보수적 신앙과 교파적 정체성을 고수하였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활동 당시나 사후에도 양가적이었다. 디아코니 사업에 대한 공

40) 강원돈, 앞의 책, 35쪽.

41) 뢰헤는 1808년 남부 바이에른 왕국(Königsreich Bayern), 뉘른베르크 근방인 퓌르트(Fürth)생으로서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1826년 뉘른베르크의 멜랑히톤 귐나지움을 졸업하고, 같은 해 에어랑엔(Erlangen) 신학부에 입학했다. 1827년 11월 10일 처음으로 작은 선교 소모임, 즉 경건주의 소그룹을 고향에서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1828년 베를린 신학부에서 여름학기를 보내면서 헤겔과 슐라이어마허의 강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오늘, 8월 8일, 헤겔의 논리학(Logik)을 청강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도 않거나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 Johannes Deinzer, *Wilhelm Löhes Leben: aus seinem schriftl. Nachlaß zusammengestellt*, Nrnberg I 1873, 1874 (mit Nachtrag), Neuendettelsau 1935, p. 71, Wolfhart Schlichting, "Löhe, Johann Konrad Wilhelm (1808~1872)," *TRE Bd. XXI*, p. 148에서 재인용.

헌이라는 관점에서 뢰헤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42]

뢰헤는 목회경험 초기부터 이미 성경공부모임과 빈민구제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소모임 조직의 목표는 빈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말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프랑케의 경건주의적 교육 구상을 모델로 하여 학교의 교사와 학생, 견신례를 받는 청소년들 등에게 교리문답 교육을 시행했다.[43] 이러한 열성적 노력에는, 자신의 시대에 목회자의 역할이 국가 공무원 격으로 축소되어 사역지의 목회 및 지역 학교의 감독으로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었다. 당시 뢰헤의 이러한 자발적 열심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들은 지방법원 판사를 이용하여 바이로이트 종교국(Bayreuther Konsistorium)에 그를 고소하였다. 일반적인 국교회주의(Staatskirchentum)을 넘어서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목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44]

개신교 교리사에서 뢰헤는 19세기의 신루터주의(Neuluthertum)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된다. 신앙적으로는 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의 입장은 점점 교회와 교파 중심적으로 선회했다.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운영되는 각성운동의 자율적인 소모임에 대해 점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혼란한 시대 속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야하며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세속 권력이 교권에 개입한 정치적 정황과도 긴밀히 연

---

42) 1998년,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기념행사 중 대규모의 전시회가 열렸을 때에도 놀랍게도 뢰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Stempel-de Fallois, *Das diakonische Wirken Wilhelm Löhes: Von den Anfängen bis zur Gründung des Diakonissenmutterhauses Neuendettelsau (1826~1854)*, Stuttgart ; Berlin ; Köln : Kohlhammer, 2001, p. 13, 각주 3).

43) Theodor Strohm, "Wilhelm Löhes Verständnis der Diakonie der Kirche und die Wirklichkeit der Diakonie heute," 2009, p. 2. 과거에 저자로부터 직접 받은 워드 문서로 읽었으며 그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 Strohm교수의 글은 노이엔데텔스아우에서 열린 뢰헤에 관한 학술대회의 프로시딩에 실린 것으로 검색되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Wilhelm Löhe: Erbe und Vision, *ILoeS Loehe Theological Conference II*, Neuendettelsau 22. bis 26. Juli 2008.

44) Friedrich Wilhelm Katzenbach, "Wilhelm Löhe(1808~1872)," *Klassiker der Theologie 2*, Heinrich Fries/Georg Kretschmar, München: Beck, 1983, p. 179.

관되는 것이었다. 그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를 연합(Union)시켜 하나의 "복음주의(evangelisch) 그리스도교회"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강력히 저항했다.[45] 루터교의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에 철저히 정향하면서, 뢰헤는 개혁교회와 함께 하는 성찬식을 반대했다. 그가 1848년,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함께 모여 최초로 개최한 비텐베르크 '교회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도 이러한 교파주의적 입장 때문이었다. 그는 정치적 사안과 교회적 사안이 혼합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이는 교파 연합이나 초교파적인 내방선교 사업의 수행 및 국가에 열린 태도를 취한 비헤른과는 상이한 입장이었다. 뢰헤는 "목이 뻣뻣"하다고 비판받는 "교파주의자" 혹은 고백성사와 의례를 강조하는 그에 대해 개신교를 "로마화"한다고 비판받는소수의 루터교 목회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46]

당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학문적이고 날카로운 비판 또한 뢰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의 동시대인으로서 급진적 성서비판가였던 신학자 슈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β, 1808~1874)의 《예수의 생애(*Das Leben Jesu*)》(1835), 뢰헤처럼 뉘른베르크 지역 출신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교 비판가였던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

---

45) 'evangelisch'는 영미의 근본주의적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리키는 형용사 'evangelikal(영: evangelical)'과 그 의미가 다르다. 독일어 형용사, 'evangelisch'는 헬라어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 좋은 소식, 복음)에서 비롯되었으며 '복음적인', '복음에 합당한'이라는 뜻이다. 종교개혁 시기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측에서 종교개혁세력을 가리켜 'Protestant'라고 불렀으며 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했다.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을 가리킬 때 'evangelisch'라는 형용사를 붙여 종교개혁신학이야말로 복음적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했다.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 이후 루터교와 개혁교를 모두 아우르는 'Corpus Evangelicorum(개신교 연맹)'이 신성로마제국 헌법 개념으로서 자리잡게 된다(로마 가톨릭 연맹은 Corpus Catholicorum). 현재 복음주의 교회(evangelische Kirche)는 개신교회와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개신교회는 스스로를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독일 복음주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 Heinrich de Wall, "evangelisch,"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 2: Handwörterbü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Hans Dieter Betz, Don S. Browning, Bernd Janowski, Eberhard Jüngel, *Tübingen: Mohr Siebeck*, 1999, p. 1709.; Wolf–Dieter Hauschild, *Lehrbuch der Kirchen-und Dogmengeschichte Bd. 2: Reformation und Neuzei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p. 584.

46) 이는 사실 영국 성공회에서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비판하며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하고 로마가톨릭으로의 회귀 경향을 보인 고교회주의자들의 노력, 옥스퍼드 운동과도 유사하다. 뢰헤가 루터교회의 정통성을 강조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혁교회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개혁교회 신학자로서 에어랑엔 대학 신학부 교수였던 Krafft와는 친분이 깊었으며, 개혁교회에 속한 슐라이어마허의 설교에도 영향을 받았다. 칼뱅의 성서해석 또한 즐겨 읽으며 경의를 표하였다. Wolfgang Trillhaas, "Wilhelm Löhe–ein unbürgerlicher Christ: Zur Hundertjahrfeier des Diakonissenhauses Neuendettelsau," *Perspektiven und Gestalten des neuzeitlichen Christentu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pp. 146–147.

1804~1872)의 《그리스도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1841)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47] 당대에 급속히 발달하던 성서 비평학의 발달과 이로 인해 벌어진 신학적 논쟁들에 대한 뢰헤의 반응을 그의 활동이나 저술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 성서와 교회사적 전통을 기반으로 의례의 재확립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했다. 성만찬에 대한 강조는 물론, 개신교 내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고해성사의 형식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운영하여 교회 공동체를 신앙의 기반 위에 확고히 세우려했다. 또 다른 예로서, 그는 성서 구절을 기반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당시 교계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큰 이목을 끈 사건이기도 했다.[48] 목회자로서의 그의 활동은 교파중심적이며 성서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근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2) 디아코니 이해

뢰헤는 목사수련생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831년부터 노이엔데텔사우 담임목사로 임직하기 이전까지 구제사업의 필요성과 그 성서적 근거에 대해 이해를 넓혀갔다. 또한 비헤른처럼 슐레지엔의 코트비츠 남작의 사회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49] 키르헨라미츠(Kirchenlamitz)에서 1831년에서 1834년까지 목사수련생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구제사업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쌓게 되며 그 신학적 근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830년대는 흉년으로 인한 기아문제 및 콜레라 확산으로 인해 광범위한 빈곤상황이 큰 사회문제로서 대두되

47) *Ibid.*, p. 144, 146. 비헤른의 경우 포이어바흐의 철학으로 인해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났다고 교회의 날 즉흥연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Johann Hinrich Wichern, "Rede auf dem Wittenberger Kirchentag," Wolfgang Maaser, Gerhard K. Schäfer, *Geschichte der Diakonie in Quellen: Vom Anfang des 19. Jahrhunderts bis zur Gegenwar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6, p. 120

48)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 (새번역).

49) 뢰헤는 코트비츠가 설립한 '빈민–고용을 위한 자원봉사 사역회'(Freiwilligen Armen–Beschäftigungs–Gesellschaft) 소속회원들 앞에서 경건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Theodor Strohm, *op. cit.*, p. 1.

던 시기였다. 그가 목회적으로 돌보던 농촌마을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50] 그는 가난과 질병, 그로인해 야기되는 알코올 중독문제와 범죄, 와해된 가정, 협소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주거상황,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들(특히 여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면했다.

뢰헤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 실질적인 구제사업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 갱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영적 갱신의 지향점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 형제애로 하나 됨, 나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단순하고 순결한 삶이었다. 그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만찬을 긴밀하게 자주 나눈 것이야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근본적 동력이었다고 확신했다. 신학적 기반으로서는 마태복음 25장과 사도행전 6장 1~7절 등이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뢰헤는 섬김과 사회구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앙적이며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했으며 이 기본적 목회 노선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

비헤른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구제시설을 설치했음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대두되던 문제 중 하나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사생아로 태어나거나 와해된 가정 상황 속에서 오갈 데 없이 떠도는 것이었다. 편모가정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뢰헤는 아이들을 방관하는 여성들을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며 부정을 행하는 교활한 창녀", "사탄의 사자(使者)"로 묘사하였으며 그 모든 곤경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악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51]

---

50) 이러한 물질적 빈곤 상황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난을 덮어버리고자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내고 탐욕적입니다. 사람들은 낭비하기 위해 부지런합니다. 특히 배부르고자 근심하는 것은 또한 번영의 암(癌)에 딱 맞는 것입니다. 물욕은 예를 들어 암거래처럼 모든 가능한 악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 가난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 어떤 이는 자녀가 바라는 것, 음료와 같은 것에 몇 푼의 돈(Groschen: 당시 은화)을 소모하면서 점점 커가는 근심을 잠재우고자 합니다. … 교회 소유지의 새 건물들은 화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에 대해 결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Wilhelm Löhe, "Pfarrbeschreibung von 1833," p. 22f (GemA/KL. 33.), Stempel–de Fallois, *op. cit.*, p. 78–79에서 재인용.

51) 이를 통해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마주할 수 있는데, 당시 각성운동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신앙적 목회적 세계관이기도 했다. 뢰헤와 동시대인인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Johann Christoph Blumhardt, 1805~1880)는 뷔템베르크 지역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서 그가 뫼틀링엔(Möttlingen)에서 악령에 시달리던 28세의 디투스(Gottlieben Dittus)를 치유한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주치

1836년 11월 16일, 뢰헤는 노이엔데텔사우(Neuendettelsau)에 담임 목사로 임명된다. 현재 그곳은 한 지역으로서는 디아코니 시설이 최대규모로 밀집해있으며 아우구스타나 신학대학(Augustana-Hochschule Neuendettelsau) 또한 자리 잡고 있다. 잘 정비된 최신식 시설들은 훗날 국가의 사회복지 기금을 통해 정비된 것이지만 노이엔데텔사우의 근본적인 변신은 뢰헤의 활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뢰헤가 담임목사로 부임했을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 노이엔데텔사우는 집 75채에 127가구 규모의 마을로서 총 454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뢰헤가 담당하는 주변지역 거주민까지 합하면 928명(1843년 당시) 정도가 그가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총 인원이었다.[52] 뢰헤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의 회복, 성찬식으로 결속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예배 갱신을 통해 주민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했다. 개인의 고해(성사)의 재도입까지 추진했는데 이는 종교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교계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는 행위였다. 그는 개개인의 신앙적 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나 이와 동시에 마을의 빈곤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다양한 사회구제사업을 추진했다.

1840년대 초부터 뢰헤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북아메리카로 떠난 독일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활동에 힘썼다. 낯선 땅으로 떠난 이들이 루터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 뢰헤는 뉘른베르크에서 교사로 활동하던 프리드리히 바우어(Friedrich Bauer)와 함께 '선교사 양성소'를 설립하여 그곳으로 파송할 선교사들을 훈련시켰다. 미국 선교지에 끼친 그의 영향력에

의는 디투스의 병세가 의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귀신들린 증상으로 진단하고 블룸하르트 목사에게 치료를 맡기도록 했다.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병세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성서를 기반으로 하여 블룸하르트는 예수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에 힘입어 "어둠의 힘"에 대항하는 것으로 자신의 치유사역을 이해했다. 1843년, 블룸하르트의 치유를 위한 노력 중 디투스의 악령이 "예수는 승리자"임을 외치는 순간 그가 완전히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로 뫼틀링엔 교인들은 목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방식을 통해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그와 친분이 있던 의사 발렌티(Dr. de Valenti)는 왕실 종교국에 그를 고발했고 블룸하르트는 병자들을 돌보거나 아침이나 오후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집전 금지명을 받게 되었다. Joachim Scharfenberg, "Johann Christoph Blumhardt," *TRE Bd. VI*, p. 722. 블룸하르트의 사례는 뢰헤와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당시 목사의 종교적 치유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의식과 그러한 치유자로서의 목사에 대한 신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를 통해 잘 엿볼 수 있다.

52) Stempel-de Fallois, *op. cit.*, p. 126.

대한 내용은 그 자체로도 방대하다. 미국 루터교 역사에서 뢰헤는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849년에는 또한 '내방선교회(Gesellschaft für innere Mission)'를 조직했는데 비헤른이 창립한 '내방선교를 위한 중앙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기도 했다.[53] 비헤른의 경우 내방선교를 중심으로 한 초교파적 협력기관 설립을 찬성했다. 비헤른은 각 지역으로 순회강연을 했고 그의 구상에 대한 지지자들이 점점 증가했다. 그러나 뢰헤의 경우 비헤른의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선교란 교회공동체로부터 출발해야하는 것이기에 내방선교를 수행하는 독립된 대표기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뢰헤가 구상한 내방선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참된 교회(die wahre Kirche)'인 루터교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과 성만찬, 성서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1845년에 그가 발표한 《교회에 관한 세 권의 책(*Drei Bücher von der Kirche*)》에서 뢰헤는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교를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통해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것은 오직 루터교이기에 루터교만이 "진리의 수원(水原)"임을 선언하고 있다.[54] 1854년 3월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 바이에른에서는 최초로 '루터교 여성 디아코니회(Lutherischer Verein für weibliche Diakonie in Bayern)'가 설립되었고 '여집사 양성소(Diakonissenanstalt)' 운영이 시작되었다. 여집사 양성소는 그 외에도 여성교육, 유아보육, 병원, 장애인 시설로 그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

53) 노이엔데텔사우에 설립된 이 선교회는 후에 '내방-외방 선교회(Gesellschaft für innere & äußere Mission)'로 확장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54) "제가 혼자임이 아닌 것, 홀로 순례하지 않다는 것 저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순례하고 있음에 저는 매우 기쁘며 마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미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 저 혼자가 아님을,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잔치를 벌이러 가는 무리 가운데 순례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압니다.' 혹여 제가 그들, 이 무리를 아는지, 혹 이 각 순례자들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아시'고, 그 입을 통해 모든 세대들로부터 큰 무리 하나가 등장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루터교회는 순수한 고백 가운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지키고 있기에 진리의 수원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서 만족되어야 할 모든 교회들이 만족함을 얻습니다!...여기에서 모든 구원이 시작됩니다." Wilhelm Löhe, *Drei Bücher von der Kirche*, Stuttgart: Verlag von Sam. Gottl. Liesching, 1845, p. 227.

뢰헤에게 디아코니 사업은 인민의 신앙과 교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었다. 사회문제의 발생한 이유는 사회가 도덕적 종교적인 타락에 빠졌기 때문이다. 곤경에 처한 이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교회 구성원으로 회복시켜야하는 것이 목회적 임무였다.[55]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비헤른의 것과 동일하며 당시 공산주의 민주주의 혁명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세계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마주하며 정치 사회적 문제의 근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앙적 도덕적 타락이 모든 것의 근본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해 뢰헤는 교회의 책임적 역할을 강조했다. 1840년대 중반 이래로 혁명 및 산업화의 여파로 인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게 된 책임이 사람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 교회에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확신했다. 더불어 빈민구제야말로 명백한 교회의 임무이며 특히 성직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함을 촉구했다.[56]

3. 내방선교의 '디아코니'에서 현대적 '복지' 사업으로의 변화

뢰헤의 선교목표이자 그 가시적 결실은 루터교 공동체의 건립 및 성장이었다.[57] 종교개혁 이래로 가장 참된 루터교회의 확립이 그의 주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디아코니 사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신앙적 선교적 열정이 사회의 빈곤 및 질병문제에 대한 디아코니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55) "공업, 산업, 학문성, 그러한 것들은 제게 참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으리. … 잃어버린 것을 구하라", "Brief Löhes an H. Reinsch vom 12.12.1835," Stempel-de Fallois, *op. cit.*, p. 106에서 재인용.

56) *Ibid.*, p. 230.

57) 뢰헤의 교파주의적 경향만 제외한다면 19세기에 탄생한 '선교학'이라는 신학학제의 기본 내용은 물론 소위 이방인들의 세계로 나아가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었다.

다. 현대적 의미의 어떠한 차별 없이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한 사회복지사업은 이 시기에 대입되지 않는다. 굳이 대입시켜보자면 뢰헤보다는 초교파적이며 국가와의 협력에 열린 입장을 지닌 비헤른의 디아코니 사업이 현대적 복지 개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1840년대에서 1880년대 이전까지 개신교의 디아코니 사업에 대한 이러한 분화된 평가는 그리스도교가 역사적 문화적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종교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급격히 세속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이슬람을 비롯한 타문화권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서양국가(christliches Abendland)"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교회공동체의 예배 출석자의 수와 무관하게 그리스도교적 공동체 구조가 각 지역마다 존재한다.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교 산하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엮여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1849년, 내방선교를 위한 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온 이래로 여러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신교가 사회를 향해 복지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가고 있으며 국가협력을 통해 그 영향력을 심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연속적 정체성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당대에는 루터교 교파주의 흐름 가운데서도 특히 강성으로 취급되었던 뢰헤도 장기간의 그리스도교 개신교사의 흐름 가운데 등장하는 신학적 입장차이의 사례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속적 역사성에 대한 학문적 담론이 활발하게 재생산되며 디아코니의 정체성은 강화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혁이 시도되고 있다.

독일 제국시기 비스마르크 총리는 빈곤의 문제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 보다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초기에 그는 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에는 관

심이 없었다. 그러나 1880년대 일련의 공공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사회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민간 그리스도교 구제사업, 자선단체들과 사회적 기관들이 범위를 넓혀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렸다. 내방선교 중앙위원회는 공공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국가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갔다.[58] 이로써 독일에서는 국가와 개신교의 내방선교–디아코니 단체처럼 민간 복지 조직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모델로서 이중 체계(dual system)가 자리 잡게 되었다.[59]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들어서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제국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전 시기에 빈민구제의 관점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면서 경찰이 이를 관리,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을 향한 사회복지정책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923년 2월 23일에 제국복지의무규정이 반포되면서 "공적 복지와 민간복지가 목적에 따라 서로 보완하고 양자의 독립성을 살리는 형식으로 협동하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60]

국가의 전문적 복지사업이 시작되며 복지수혜자는 급증하였으며 개신교의 내방선교 사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기존의 훈련방식을 통해 복지사업에 참여하던 인력들과 내방선교의 여집사와 집사의 사역으로는 더욱 전문화되어가는 상황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내방선교 중앙위원회의 감독이자 신학자였던 요한네스 슈타인벡(Johannes Steinweg)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베를린 대학에 '사회윤리와 내방선교연구소'를 신학부에 설치하였다. 연구소 운영은 조직신학자 제베르크(Reinhold Seeberg)가 맡았다. 1938년 나치

58) 여기에서는 지면상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와 관련된 복잡다단했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통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강원돈, 앞의 글, 2007.

59) Johann–Christoph Kaiser, "Der Protestantismus von 1918 bis 1989," Johann–Christoph Kaiser, Wilfried Loth (ed.), *Soziale Reform im Kaiserreich. Protestantismus, Katholizismus und Sozialpolitik*,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p. 196.; Kunter, *Diakonie and Protestantism in Germany, c. 1780~1920*, p. 235에서 재인용.

60) 강원돈, 앞의 책, 54–55쪽.

시대에 연구소 운영이 강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4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디아코니 연구소가 세워지면서 개신교의 전문적 사회사업의 참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디아코니학(Diakoniewissenschaft)이 공식적인 학제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61] 1957년에는 '내방선교 중앙위원회'와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후 복구를 위해 조직된 '개신교 구호국(Evangelisches Hilfswerk)'이 '독일개신교협의회의 내방선교와 구호국'으로 통합된다. 이후 20여 년간의 장기적 협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1975년에 '독일개신교협의회 디아코니 사업단(Diakonisches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utschland e. V.)'이 설립되었다.[62]

최근 디아코니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 개신교협의회(EKD)' 변화의 노력은 더욱 활발하다. 1975년에 설립된 '독일 개신교협의회 디아코니 사업단'은 2012년까지 '세계를 위한 빵(Brot für die Welt)'의 활동을 포함한 협회로서 독일에서 디아코니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12년 10월부터, 디아코니 사업단을 '개신교 발전지원단(EED: Evangelisches Entwicklungsdienst)'과 병합하여 '디아코니와 발전지원을 위한 개신교 사업단(Evangelisches Werk für Diaknoie und Entwicklungsdienste)'을 새롭게 창립하였다.[63] 독일 디아코니는 '디아코니와 개발원조를 위한 개신교 사업단' 산하단체가 된 것이며, 과거에도 '세계를 위한 빵'을 통해 개발도상국 교회와 학생들을 지원해왔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독일 디아코니는 더욱 글로벌한 정체성을 갖고 국내외적으로 디아코니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었다. 현재에도 독일 개신교 교회법에는 디아코니적이고 선교적

61) 디아코니학은 신생분과이나 구체적인 실천의 장과 연계되어 있기에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신교 신학을 기반으로 하되 학제 간 협업을 통해 학문적으로도 발달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Johannes Degen, Diakonie, *Religion und Soziales: Ansichten der kirchennahen Sozialwirtschaft*, Münster: LIT Verlag, 2014, pp. 213–214. 디아코니학의 전개에 대해서는 같은 책 제 5장 "디아코니학 성립과정(Diakoniewissenschaft im Prozess ihres Werdens)" 참조.

62) 강원돈, 〈독일개신교협의회 사회봉사국의 설립과 디아코니아 개념의 정립〉, 《신학사상》 158집, 한국신학사상연구소, 2012, 58쪽.

63) https://regionalheute.de/wolfenbuettel/ekd–gratulation–zur–grundung–des–evangelischen–werkes–diakonie–und–entwicklung 1999년 창립된 EED는 개신교차원에서 해외원조 및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초교파적 세계선교–지원사업, 초교파적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해왔다.

인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 표현이자 삶의 표현(Wesens-und Lebensäußerungen der Kirche)"임이 명시되어 있다.[64] 그러나 공공사회복지 영역에서 '내방선교'라는 모토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으며 디아코니 정신으로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선한 삶, 더 나은 삶,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협력과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V. 정리 및 전망

이상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19세기 중반 독일 디아코니사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일 개신교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디아코니 사업단이 1848년 독일 함부르크 신학자인 비헤른에 의해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이해방식은 독일 혹은 서구의 현재적 자기이해 속에서는 당연할 수 있겠으나 한국적 입장에서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단의 역사를 일직선상의 발전과정으로만 이해하기는 무리이다. 당시 독일 개신교 사회복지 사업의 모토는 '내방선교', 즉 인민의 재그리스도교화와 교회 개혁이었다. 디아코니는 내방선교의 하위 내용이자 선교의 실천행위였다. 국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아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독일 디아코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디아코니학을 통해 훈련시키고 있다. 선교를 위한 실천으로서의 디아코니 이해는 현대적 사회복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디아코니'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있으며 '내방선교'라는 모토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개신교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비헤른 때부터가 아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이후에 해당될 것이다. 그 이전의 개신교의 경전적, 교리적,

64) Kirchenamt der EKD, Grundordnung, Art. 15, 1. https://kirchenrecht-ekd.de/document/28287/search/lebens%25C3%25A4u%25C3%259Ferung (2019년 11월 2일 확인).

교회사적 의미에서의 디아코니적 활동은 종교적 '구원 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어떠한 구별 혹은 차별을 당하지 않고 복지의 대상으로 평등하게 포함되어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펼쳐야 하는 정책이라는 의무와 당위로서 복지를 이해하는 현대적 방식과는 상이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독일의 디아코니 사업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이상적 해석을 통해 디아코니 정신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개신교 개혁운동이었다. 즉 사회의 탈그리스도교화, 탈교회화 및 당대에 벌어진 사회문제에 대한 반응이자 개신교의 자기준거적 해석방식이었다. 이는 신학적으로 교회론과 연동되는 것으로서 선교의 목적은 교회/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설립이다. 19세기 중반의 디아코니는 선교의 확장을 위한 프락시스였다. '독일 개신교의 사회적 복지/사회복지'로서의 디아코니 사업은 독일 디아코니가 세속권력의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 건설을 위한 현대적 의미의 공공 사회복지정책에 협력하게 된 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쓴다면, 식민지의 안정적 지배를 위해 일제가 펼친 구호사업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의 일환으로 진행한 구제사업은 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뢰헤가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역사쓰기'에서 최근에 조명 받게 된 것은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 사업단의 성장과 1954년부터 정식 학제로서 신학부에 설립된 '디아코니학(Diakoniewissenschaft)'의 발전 및 디아코니학에서의 활발한 디아코니사 정립 및 해석 작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뢰헤의 내방선교와 디아코니에 대한 이해는 세속권력, 즉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국가의 안녕/국가의 복지에 대한 생각과 내방선교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뢰헤에게는 국가권력을 인정하고 그에 협력하려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뢰헤 자신의 표현대로 그에게 있어 정

통왕조란 오직 "다윗 왕조" 외에는 없었다.[65] 이러했던 그가 최근에 와서야 재발견되고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한 계기를 우리는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사업단의 자기이해과정, 현대적 자기 정체성 재수립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 사업단은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과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디아코니의 신학적인 성찰을 기반으로 한 발전, 특히 그것이 정치, 사회, 경제적 급변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우며 한국 개신교의 상황을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사회복지는, 종교적으로는 루터교 국교회(Staatskirche) 전통의 맥락에 서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타문화권이며 다종교적인 한국의 맥락은 판이하다. 개신교의 자기 변화에 대한 반응과 평가의 기준도 한국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가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 사업과 활동,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노력과 과정에 대해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 구조적 시스템이 한국에서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단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 또한 타종교와 더불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의 임무를 수행할 때 선교/전도라는 종교적 내적 동인이 참여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할 때 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신앙을 강요하는 문제

65) Trillhaas, "Wilhelm Löhe—ein unbürgerlicher Christ: Zur Hundertjahrfeier des Diakonissenhauses Neuendettelsau," *Perspektiven und Gestalten des neuzeitlichen Christentum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5, p. 148 참조.

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극명한 사례이기도 하다.[66]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그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것을 강권할 수도 없겠지만, 개신교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게 만약 신앙을 강요한다면 그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개혁교 중심의 전통에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적, 근본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하기에, 자유주의적 신학 전통의 토대 위에서 초교파적인 협력에 적극적인 독일 개신교회와는 그 성향이 다르다. 대형교회 권력이 교단 정치를 좌지우지하여 교단 중심으로도 통합이 어려운 강력한 개교회주의가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윤리 기준에도 미달되는 경우가 교단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단지 명목상으로나 상징적으로 현존하는 협회가 아닌, 중앙집권적으로 힘을 모아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협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매우 버거운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의 경우도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종교 시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와 국가의 '복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 혹은 종교와 국가의 절대적 분리를 강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사회 변화의 현실에서 종교적 공공성과 국가적 공공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 발굴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의 경우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의 과정,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변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난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66)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한국일보》, 2018.1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11849072056?did=na%EC%97%90%EC%84%9C (2019년 11월 27일 확인), 〈종교행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서울시는 왜 눈감나?〉, 《비마이너》, 2018.3.1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71&thread=04r07 (2019년 11월 27일 확인)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는 변동되기 마련이며 종교적 지형도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개신교가 어떻게 그 변동을 마주하여 사회와의 협상의 과정을 겪게 되며 어떠한 자기 변화를 모색할지 기능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변화될지는 열린 미래 가운데 계속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_김태연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논문으로 〈슐라이어마허 종교론의 수용사적 의미〉, 〈루돌프 오토의 초기 사상에서 바라본 '성스러움' 개념의 발전과 형성에 관한 소고〉 등이 있다.
tyeon.kim@daum.net

참고문헌

강원돈, 2007,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복지사상〉, 《기독교 사회윤리》 제 14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_____, 2012, 〈독일개신교협의회 사회봉사국의 설립과 디아코니아 개념의 정립〉, 《신학사상》 158집, 한국신학사상연구소.

_____, 2016,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한신대학교출판부.

권중돈 외, 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김정기 · 최원규 · 진재문, 2010,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

정지웅, 2013, 〈독일 디아코니와 한국 개신교사회복지의 비교 분석〉, 《교회와 사회복지》 23호,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홍주민, 2005, 〈독일의 디아코니아와 요한 힌리히 비헤른〉, 《신학연구》 제47집, 한신학술원 신학연구소.

_____, 2009,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실천과 신학화 과정에 관한 연구: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신학화 과정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18집, 한국실천신학회.

_____, 2007, 〈16세기 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마틴 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집, 한독사회과학회.

_____, 2012, 〈복지국가 스웨덴과 개신교 디아코니아 관련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32집, 한국실천신학회.

허우정, 2008, 〈하인츠 바그너 (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국교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한국실천신학회.

최무열, 2015,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대사회적 신뢰성 회복방안으로서의 디아코니아 활용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제47집, 한국실천신학회.

Benrath, Gustav Adolf, 1982, "Erweckung/Erweckungsbewegungen I," Gerhard

Krause, Gerhard Mü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Boeckh, Jürgen; Huster, Ernst-Ulrich; Benz, Benjamin. 2011,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Eine systematische Einführung*, Wiesbaden: VS Verlag.

de Wall, Heinrich, 1999, "evangelisch,"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 2: Handwörterbü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Hans Dieter Betz, Don S. Browning, Bernd Janowski, Eberhard Jüngel, Tübingen: Mohr Siebeck.

Degen, Johannes, 2014, Diakonie, *Religion und Soziales: Ansichten der kirchennahen Sozialwirtschaft*, Münster: LIT Verlag.

Fallois, Stempel-de, 2001, *Das diakonische Wirken Wilhelm Löhes: Von den Anfängen bis zur Gründung des Diakonissenmutterhauses Neuendettelsau (1826~1854)*,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Geiger, Erika, 2003, *Wilhelm Löhe (1808~1872): Leben-Werk-Wirkung*, Neuendettelsau: Freimund Verlag, 2003.

Green, Todd H., 2011. Responding to Secularization: The Deaconess Movement in Nineteenth Century Sweden, Leiden, Boston: Brill.

Gutmann, Hans-Martin, 2005, "Der Schatten der Liebe: 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 Johann Anselm Steiger(ed.), 500 Jahre Theologie in Hamburg: Hamburg als Zentrum christlicher Theologie und Kultur zwischen Tradition und Zukunf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Hauschild, Wolf-Dieter, 2004,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Bd. 2: Reformation und Neuzeit*, Gütersloh: G tersloher Verlagshaus.

Horn, Friedrich Wilhelm, 1998 "Diakonische Leitlinien Jesu," Gerhard K. Schäfer, Schäfer, Gerhard K., Strohm, Theodor (ed.), Diakonie-biblische Grundlagen und Orientieurngen, 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sanstalt.

Katzenbach, Friedrich Wilhelm, 1983, "Wilhelm Löhe(1808-1872)," Heinrich Fries/ Georg Kretschmar, Klassiker der Theologie 2, M nchen: Beck.

Kluge, Friedrich, 1989(개정 22판, 초판 1883),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Kunter, Katharina, 2007, "Diakonie(Welfare and Social Work) and Protestantism in Germany, c. 1780~1920," Leen van Molle (ed.), *Charity and Social Welfare: The Dynamics of Religious Reform in Northern Europ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Löhe, Wilhelm, 1845, *Drei Bücher von der Kirche*, Stuttgart: Verlag von Sam. Gottl. Liesching.

_____, 1859, *Von der weblichen Einfalt*, Stuttgart: Verlag von S. G. Liesching.

McVicker, John, 1825, *Outlines of Political Economy*, Broadway: Wilder & Campbell.

Philippi, Paul, 1984, "Diakonie I,"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II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Sedgwick, Peter, 2004, "Wohlfahrtsstaat,"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36,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Scharfenberg, Joachim, 1980, "Johann Christoph Blumhardt," Gerhard Mül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V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Schlichting, Wolfhart, 1991, "Löhe, Johann Konrad Wilhelm (1808–1872),"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Smith, Adam, 1775,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원문출처 http://www.gutenberg.org/files/3300/3300-h/3300-h.htm

Strohm, Theodor, 2009, "Wilhelm Löhes Verständnis der Diakonie der Kirche und die Wirklichkeit der Diakonie heute".

Trillhaas, Wolfgang, 1975, "Wilhelm Löhe–ein unbürgerlicher Christ: Zur Hundertjahrfeier des Diakonissenhauses Neuendettelsau," *Perspektiven und Gestalten des neuzeitlichen Christentu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Wegner, Gerhard, 2018, "Religion und Wohlfahrt," Detlef Pollack etc (ed.), *Handbuch Religionssoziologie*, Wiesbaden: Springer VS.

Wichern, Johann Hinrich 1848, "Rede auf dem Wittenberger Kirchentag," Wolfgang Maaser, Gerhard K. Schäfer, 2016, *Geschichte der Diakonie in Quellen: Vom Anfang des 19. Jahrhunderts bis zur Gegenwar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ブラオン, 1875,《致富新論譯解》, 中島雄 · 讚井逸三 옮김, 松栢堂(家藏).

鮑留雲, 1847,《致富新書》, 香港: 飛鵝山書院.

王斌, 2016,〈明治初期における経濟學翻譯の一齣: 漢譯書『致富新書』をめぐって〉,《翻譯研究への招待》, 15, 日本通譯翻譯學會.

https://www.diakonie.de/

Kirchenamt der EKD, Grundordnung, Art. 15, 1.

https://kirchenrecht-ekd.de/document/28287/search/lebens%25C3%25A4u%25C3%259Ferung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개신교와 사회복지'의 모범으로서 평가되는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 사업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19세기 중반 독일 개신교에서의 디아코니 이해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디아코니 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복지' 개념과는 상이한 의미였으며, 개신교의 디아코니 개념이 현대의 '복지' 개념과 상응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때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임을 논의한다. 디아코니 이해방식에 대한 자료는 디아코니 사업단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한 힌리히 비헤른(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과 최근에 들어서 디아코니와 관련하여 많은 조명을 받는 빌헬름 뢰헤(Wilhelm Löhe, 1808~1872)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디아코니를 혁명과 산업화, 기근으로 인해 탈교회화되는 인민들을 재그리스도교화 하기 위한 내방선교의 실천적 활동으로 이해했다. 비헤른은 구제사업을 통해 인민의 신앙 회복과 교회공동체로의 복귀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교적 국가 정립을 목표로 한 반면, 뢰헤는 참된 루터교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들의 디아코니 이해는 현대의 보편적 복지개념과 달랐다. 내방선교의 하위개념이었던 디아코니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때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이는 독일 개신교가 디아코니라는 모토 하에 자신의 정체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 사업을 19세기 중반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개신교의 사회복지사업의 한 이상적 모델로서 바라보기는 어려우며, 독일 개신교 또한 디아코니 사업을 선교적 목적을 위한 프락시스로서 더 이상 이해하고 있지 않다. 한국 개신교가 종교단체에 공공복지 재정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할 때,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종교 중립적으로 대

하지 않는 것은 현대의 사회복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개신교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복지에 더욱 기여하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와 개신교의 역할에 큰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복지, 내방선교,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 요한 힌리히 비헤른, 빌헬름 뢰헤, 종교와 복지, 개신교와 사회복지

Abstract

The Social Welfare Activity and the German Protestantism :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Diakonie* in the Mid-19th Century

Kim,Tae Yeon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Diakonie*(*diaconia*) concept has been understood in relation to *Innere Mission* (inner mission) in the mid-19th century of German Protestantism. The German Diakonie organization has been highly appreciated among the Korean Protestant theologians as an typical example of the Protestant social work and valued it to improve the German social welfare system since its inception of the mid-19th century. The *Diakonie* concept initially seems to be conflicted with the secular welfare system, however, it changed as late as the mid-20th century to be co-operative hand-in-hand with the modern social welfare, which has been steadily adapted to a social policy for all the levels of people without any discrimination. In this paper, firstly I discuss on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복지'(*bokji*: welfare) and its context. It is a preliminary and necessary step to make clear of the confused concepts of *Diakonie* work and modern welfare activity while referring to the mid-19th century contexts. Secondly, I analyse the ways of how to properly understand *Diakonie* based on two important figures of the protestant Diakonie: Johann Hinrich Wichern, who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creation of Diakonie organization in Germany and Wilhelm Löhe, to whom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because of his contribution to Diakonie. Both of them understood *Diakonie* as the

practical activity for the inner mission to re-christianize the people, being estranged from the churches, caused by the aftermath of European revolutions, industrialization and severe famine. Their common goal was to restore the religious faith among the people and let them return to the church community through the Diakonie work: Wichern ultimately aimed to re-establish a Christian nation again, but Löhe wanted to regain the genuine and faithful Lutheran church communities. *Diakonie*, originally started as a sub-concept of the inner mission, has been fully blossomed as a religious ideal since the mid-20th century in German protestantism. This is an another accomplishment done by the German Protestantism, which attempted to separate the secular welfare and redefine its identity, reflecting the spirit under the motto of *Diakoni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German protestant Diakonie as an ideal model of protestant welfare work since the mid-19th century. The final question is that *Diakonie* is accountable as the means for the Christian mission or not, which is not always consistent with the modern concept of welfare.

When Korean protestantism participates in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public finances are put into religions, the view of welfare service users as a object of mission is becoming an issue as a social problem. It is a case of violationg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lue in social welfare studies. The non-neutral approach to welfare service users is discrepant from the meaning of modern social welfa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activity and the Protestantism welfare spirit in Korea requires the changes and the innovations by the way of constant discussions and sincere consultations of it over the long term period.

Key Words: *bokji*, Innere Mission, Diakonie Deutschland, Johann Hinrich Wichern, Wilhelm Löhe, Religion and Social Welfare, Mission and

투 고 일: 2020. 01. 16.
심 사 일: 2020. 02. 21.
게재결정일: 2020. 02. 25.